

전교조 출신 첫 전남교육감 “전남교육 새바람 일으킬 것”

장석웅 전남도 교육감 당선 의미와 과제

전남교육 사상 처음으로 전교조 출신 교육감이 탄생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을 지내고 개혁성향이 뚜렷한 장석웅 후보가 13일 민선 3기 전남도교육감에 당선되면서 전남교육에도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장 당선인이 이날 당선 확정 후 민선 1, 2기 전남교육에 대해 “지난 8년 총장 출신 교육감 시절 전남교육은 실적 중심, 성과 중심, 과시형 전시행정에 치중하다 보니 혁신 교육정책은 오히려 퇴보했다. 유능한 분이 교육감을 맡아 나름 성과도 있었으나 교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교실개혁에는 미흡했다”고 평가한 데서 앞으로 전남교육 변화의 폭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 당선인은 선거기간 “우리 아이들이 ‘돈’ 때문에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 학교를 세상에서 가장 평등한 곳으로 만들겠다”고 줄곧 밝혀왔다. 그가 내놓은 공약도 이 두 문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중·고교 신입생 교육, 체육복비 지원과 초·중고 학생들 수학여행비, 체험활동비, 방과후활동비 등 지원 ▲도민이 참여하고 결정하는 전남교육 실현을 위한 ‘전남교육자치위원회’ 운영 ▲GMO 없는 친환경급식 확대, 위해물질 제거로 안전한 학교 만들기 ▲‘전남형 미래학교’ 프로젝트 추진으로 마을과 학교의 상생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및 고용, 학생자치 실현, 교직원 업무 경감을 실현 등이다.

목포대 총장 출신의 고석규 후보, 나주교육장 출신의 오인성 후보를 누르고 전남 교육의 새 수장 자리에 오른 장 당선인은 이날 “오늘의 승리는 개인 장석웅에 대한 믿음과 기대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전남교육의 변화에 대한 열망, 문재인정부의 교육개혁 성공에 대한 열망이 모인 결과”라고 평가했다.

전남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구상에 대해서 “교육의 질은 선생님의 질을 넘어서지 못한다”며 “교사들의 사기와 열의, 창의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수업과 생활 지도 외 행정업무는 대폭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장 당선인은 또한 “학부모들의 불안과 걱정을 덜어주는 적극적인 교육행정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초등학교교부터 학력격차로 학업포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학력책임제를 실시하고, 아이들의 진학 진로도 적극 챙기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권역별 진로진학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문가를 배치, 전문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특성화고등학교를 마이스터고 수준으로 대폭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년 수십개 학교가 폐교되는 암담한 현실 아래 장 당선인이 내놓은 ‘전남형 미래학교’ 프로젝트가 얼마나 결실을 거둘지도 주목된다. 그는 “낮에는 학교, 저녁에는 마을을 위한 복지시설, 문화공



13일 밤 민선 3기 전남도교육감으로 당선된 장석웅 후보가 순천연향동 선거사무실에서 부인 윤명숙 여사, 지지자들과 함께 환호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간, 보건소,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전남형 미래학교’를 설립하고 작은 학교라도 저마다의 특색을 살려 학교와 마을이 상생하도록 만들겠다”고 밝혀왔다.

장 당선인은 전남 교육의 변화를 위해 교육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언급하며, 학교를 살리고 교실이 변화하는데 예산이 집중 지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교를 민주적 교육공동체로 만드는 데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학생자치를 확대해 민주시민으로서 소양과 자질을 키우고 인사와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 학교비정규직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교장을 비롯한 교원, 행정직, 비정규직 선생님들이 함께 아이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나누겠다고 약속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37년간 평교사 활동...전교조 결성 주도로 해직 아픔

장석웅은 누구

장석웅 전남도교육감 당선인은 37년간 전남에서 평교사를 지내며 교육운동에 앞장서왔다.

1988년 전교조 결성을 주도하다 5년간 해직된 바 있으며, 2011년부터 2년간 전교조(전국) 위원장을 지냈다. 1979년 9월 보성 읍에서 시작해 담양 한재중, 해남 화산중, 나주 문평중, 해남 옥전중, 나주 다도중을 거쳐 2017년 8월 영암 미암중에서 퇴직할 때까지 줄곧 평교사로 근무해온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평교사로 정년해 봉사활동에 전념하고자 했던 그에게 2016년

박근혜 국정농단사태로 시작된 촛불혁명은 또 다른 전환점을 만들어줬다. 그는 영암촛불 삼일대표와 전남촛불 공동대표를 맡았다. 6·13 선거를 앞두고 6만 여명의 전남도민들과 373개의 전남 지역 시민단체가 참여한 민주진보교육감 전남추진위 단일후보로 경선을 거쳐 추대됐다.

장 당선인에 대해 지역 교육계에서는 “평교사를 오래 하고 교육운동에 전념해온 탓에 권위적이지 않고 수평적 리더십이 몸에 배인 사람으로, 한 번 결심한 일에 대해서는 끝까지 밀고 가는 특성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전남, 민주 對 비민주 대결 유권자 투표장 이끌어

투표율 왜 광주 낮고 전남 높았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남 지역 투표율이 69.3%로 전국 1위를 차지한 반면 광주주는 59.2%로, 전국 평균 투표율(60.2%)에도 못 미치면서 전국 하위권으로 처졌다.

전남은 4년 전에 치러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율 65.6%를 기록, 전국 1위를 차지해 4년 전에 이어 또 다시 전국 선두였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 광주 투표율은 4년 전 투표율 57.1%에 비해 2.1% 포인트 상승했지만, 마의 60%대를 넘지 못했다.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때는 광주가 82.0%로, 전국 평균 투표율(77.2%)을 훨씬 상회하며 전국 1위를 차지했던 점과 크게 비교된다.

지방선거 투표율은 대선과 총선에 비해 낮은 것이 사실이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주와 전남의 투표율이 상당한 격차를 보이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전남의 경우 22개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중 10곳 이상에서 민주당 대 비(非)민주당 후보 간 치열한 대결이 벌어졌던 만큼 정당 및 후보 지지세력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로 인해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무소속 선전·격전지 많아 69.3%로 전국 1위 기록

광주, 민주 독주 예상에 평화당 시장후보 없어 유권자 무관심·투표율 저조

이 가운데 야당과 무소속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높거나 여당 후보와의 접전이 예상되는 격전지, 네거티브 선거전이 뜨거웠던 곳을 중심으로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실제로 민주당 대 평화당, 민주당 대 무소속 간 격전지로 꼽힌 구례(81.4%), 고흥(80.7%), 신안(79.3%), 진도(78.0%), 장흥(76.6%), 강진(74.9%), 함평(74.3%) 등이 전남지역 투표율을 견인했다.

그러나 광주 시장 선거의 경우 일찌감치 민주당 독주가 예상된데다, 전남과는 달리 광주시장 선거에 평화당에서 후보조차 내지 않아 선택의 폭이 좁아진 점도 유권자들의 무관심과 투표율 저조로 이어진 이유로 풀이되고 있다.

직장인 김모(49·남구 월산동)씨는

“선거 공보물을 받아봤는데, 광역·기초 의원에 이르기까지 민주당 후보 일색인데다, 야당 후보도 눈에 띄는 인물이 없었다”면서 “정말로 찍을 사람이 없어서 투표를 하지 않았다. 찍어주고 싶은 사람이 없는데 투표를 어떻게 하나”고 말했다.

특히 사실상 하나의 선거구로 볼 수 있는 도심지역 선거 특성상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이용섭 후보의 당원명부 유출 의혹과 전두환 전 대통령 청와대 행정관 경력 논란, 그리고 일부 선거구에서 빚어진 공천 잡음과 서구청장 선거 막판에 터져나온 뇌물 수수의혹 등에 대한 후보들 간 공방 등도 유권자들의 외면을 불러온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자영업자인 최모(51·서구 품암동)씨는 “민주당 후보들은 공천만 받으면 된다는 식으로 경선 때부터 얼마나 시끄러웠나? 정책도 없고, 상호 비방만 하고 특히 상습 유증언자들이 후보로 나와 대결을 한다는 게 부끄럽다”면서 “유권자는 안중에도 없는 민주당의 공천 등으로 투표를 하기 싫어졌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지방선거 압승 이후 文대통령 행보는

한반도 ‘신 데탕트’ 강력 드라이브 예상 국민 체감 민생·경제 정책 추진 탄력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강력한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권 출범 이후 13개월만에 치러진 첫 전국선거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17곳 중 최대 14곳에서 승리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 승리로 문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의 높은 지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특히, 한반도의 평화구축 여정에서 중대 모멘텀으로 평가된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풀이거야 할 과제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이번 지방선거의 승리는 한반도 문제를 계속 다루나갈 ‘조타수’인 문 대통령에게 탄탄한 받침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7월 한반도 평화 구상을 담은 ‘베를린선언’ 이후 북한과 미국을 비롯한

동북아 국가들을 상대로 쉼없는 외교전을 펼치면서 거둔 성과가 지방선거의 ‘표심’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셈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 역시 한반도의 해묵은 냉전 구도를 깨는 ‘신 데탕트’ 무드를 잇기 위해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이 지난 6·12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로나온 직후 입장문을 통해 “앞으로도 숭한 어려움이 있겠지만 다시는 뒤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이 담대한 여정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 의지를 재확인한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지방선거의 승리로 국정동력은 확보했지만, 이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선 일자리·민생 등 경제정책 부문에서의 성과도 필요하다는 것이 여론의 대체적인 판단이다.

승리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정책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도 민주당이 경합지역 1곳을 포함 최대 11석을 추가해 130석을 확보할 수도 있지만, ‘여소야대’ 구도는 여전히 많은 국회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하는 문 대통령의 고민은 여전히 수박에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우선 보수야당의 의석수가 여전히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상황에서,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중심으로 정계개편 움직임이 빨라지게 되면 향후 정당 의석구조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다만, 정책 면에서 민주당과 상대적으로 이견이 적은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민중당, 민주당에 우호적인 무소속 의원들의 의석을 합치면 과반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수야당의 정계개편 시나리오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고려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2018학년도 후기 광신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

사랑과 감사의 64년 1954~2018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16
	박사	유아교육학과(D.Ed.)	2
일반대학원	석사	신학과(Th.M.)	6
	석사	유아교육학과(M.Ed.)	3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평생교육학과(M.Ed.)	1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3
음악대학원	석사	실용음악학과(M.A.)	2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8. 6. 11(월) ~ 22(금)
- 전형일 : 2018. 6. 27(수)
- 합격자발표 : 2018. 6. 29(금)

입학문의 ▶ 대학원 062) 605-1115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백지사로 36

가정의 달 기념 이벤트

“오티콘 보청기로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오티콘코리아 광주직영점

- 정부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
- 보조금 전용 보청기
- 무료 청력테스트
- 무료 가정 방문서비스

오티콘 OPN은 충전형 보청기로 업그레이드하여 사용 가능

오티콘보청기 광주지사 동성역 또는 화정역 4번 출구에서 100m 가량 직진 후, 1층(102호)

062-364-8800